

조선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



책 소개

외국인 선교사도 여자가 공부를 하는 것도 낯설었던 조선 후기, 점동은 선교사가 세운 여학교 이화학당에 입학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것도 싫고, 서양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무서웠지만 점동은 곧 친구도 사귀고 공부도 하며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점동은 여성 병원 보구녀관에서 양의사의 통역과 의료 보조를 맡게 되면서 아파도 마음 놓고 치료받지 못하는 조선 여인들의 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선에도 양의사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지요. 힘든 공부와 슬픈 이별을 이겨 내고 마침내 의사가 된 에스더, 하지만 조선에서 양의사로 활동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과연 에스더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더 나은 조선을 만들 수 있을까요?

당나귀를 타고 환자들을 찾아다닌 조선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역사의 책갈피에 숨어 있는 옛 여성들의 이야기, '여성 인물 도서관' 시리즈 다섯 번째 《조선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는 미신과 민간요법이 널리 퍼져 있고 여자들은 아파도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었던 시절, 여의사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치료했던 박에스더의 이야기를 담은 인물·역사 동화입니다. 열 살 점동은 어떻게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는지, 의사가 된 에스더는 왜 당나귀를 타고 사람들을 만나러 갔는지 이야기를 따라가며 꿈을 향한 박에스더의 끈기와 열정,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던 선한 마음씨를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과 연계

5-2	사회	1.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3) 민족 문화를 지켜 나간 조선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1)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

작품 키워드

#이화학당 #보구녀관 #여의사 #의료인 #김점동 #박에스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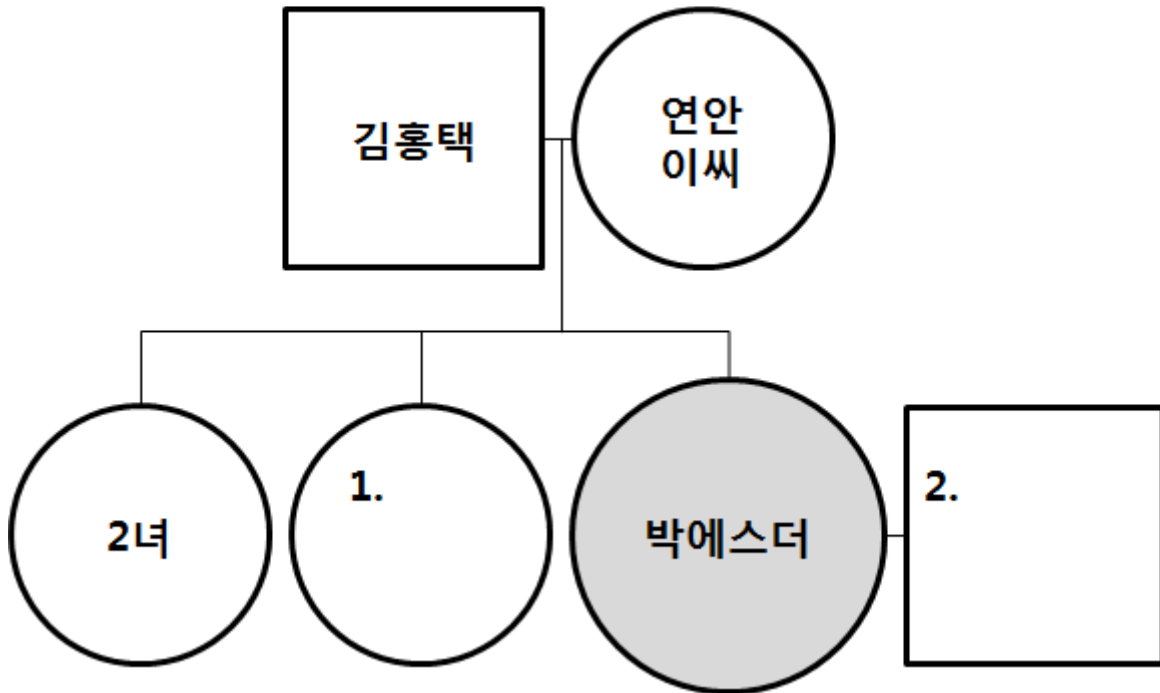
독서단원
-독서 전

조선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
(인물 관계도)

글 : 고수산나 그림 : 안혜란 출판사 : 청어람주니어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_____


책을 읽기 전에 조선 시대의 인물을 조사해서 다음 빈칸을 채워 봅시다.



[인물 설명]

1. 박에스더의 여동생이에요. 언니 에스더를 도와 병원에서 의료 보조로 일하기도 했지요. 1907년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양성소 첫 번째 입학생이며 1910년 첫 번째 졸업생이 되었어요. 졸업 후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활동했어요.

2. 박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윌리엄의 마부로 일하다가 에스더와 결혼하게 되었지요. 이후 에스더가 의학 공부를 하기 위해 미국 유학을 갈 때 함께 가서 에스더를 도왔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폐결핵에 걸려 조선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요.

 <p>독서단원 -독서 중</p>	<p>조선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 (날말 퍼즐)</p>		<p>초등학교</p>
	<p>글 : 고수산나 그림 : 안혜란 출판사 : 청어람주니어</p>		<p>학년 반 번</p> <p>이름 : _____</p>

《조선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를 읽고, 다음 날말 퍼즐을 완성해 봅시다.


	②				⑤		⑥		⑦
			③		④				
①							⑭		
			⑪		⑫		⑬		
		⑩							
⑧								⑰	
					⑮				
⑨				⑮					

가로

- ① ‘널리 여성을 구원해 주는 병원’이라는 뜻으로, 조선 최초의 여성 병원
- ④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뜻이 통하도록 말을 옮겨 줌.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로제타가 오고 점동이 ○○을/를 맡게 되면서 병원에 많은 여성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 ⑥ ‘인천’의 옛 이름. ‘로제타 부부와 에스더 부부는 ○○○에서 출발하는 배를 타고 떠났다.’
- ⑨ 외국에 파견되어 종교를 널리 전도하는 사람. ‘스크랜턴은 아들 부부와 함께 조선에 찾아온 ○○○’
- ⑩ 종합 병원 등에서 병동 등 특정 단위에 속하는 간호원(간호사의 전 용어)들의 우두머리. ‘에스더는 아기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을/를 보조하는 일을 했다.’
- ⑬ 서울시 중구의 법정동으로, 이화학당을 세운 곳. ‘○○의 언덕에 있는 이화학당은 기와지붕을 얹고 옆으로 길게 뻗은 건물이었다.’
- ⑮ 외상, 화상, 수술, 질병 등으로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의 건강한 피부 조직을 떼어 내어 그 문제 부위에 옮겨 붙이는 수술. ‘로제타는 여러 사람들의 피부를 떼어 내어 ○○ ○○ ○○을/를 성공했다.’

세로

- ② 태어나면서부터 입술과 입천장이 갈라져 있는 기형. ‘이후에도 ○○ ○○○ 수술을 받기 위해 여자들이 찾아왔다.’
- ③ 외국에 설치하는 외부무의 파견 기관. ‘일리엄은 서울 선교사 본부와 영국 ○○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했다.’
- ⑤ 병이나 상처가 난 자리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약
- ⑦ 조선 시대에, 범죄자를 잡거나 다스리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인 포도청의 으뜸 벼슬. ‘○○○○은/는 박여선의 상투를 잡고 흔들었다.’
- ⑧ 증기 기관으로 움직이는 배. ‘로제타 부부와 에스더 부부는 인천에서 ○○○을/를 타고 떠났다.’
- ⑩ 민간에서 예로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치료법
- ⑫ 원래대로 회복함. ‘2019년, 이화여자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옛 병원 건물을 ○○했어요.’
- ⑭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는 것과 서로 물품을 사고파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 ‘천주교 박해뿐만 아니라 조선 말의 ○ ○ ○○ 때문에 조선인들 사이에서는 서양인들에 대한 부정적이고 두려운 감정이 널리 퍼져 있었다.’
- ⑮ 말을 부려 마차나 수레를 모는 사람. ‘그때 ○○(으)로 데려간 사람이 박여선이었다.’
- ⑰ 소독약을 풀어 놓은 물

 <p style="font-size: 24px; font-weight: bold;">독서단원</p> <p style="font-size: 24px; font-weight: bold;">-독서 중</p>	<p style="font-size: 18px; font-weight: bold;">조선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p> <p style="font-size: 18px; font-weight: bold;">(독서 퀴즈)</p>	<p style="font-size: 18px; font-weight: bold;">초등학교</p>
	<p>글 : 고수산나 그림 : 안혜란 출판사 : 청어람주니어</p>	<p style="font-size: 18px; font-weight: bold;">학년 반 번</p> <p style="font-size: 18px; font-weight: bold;">이름 : _____</p>

1. 《조선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를 읽고, 이야기 속 빈칸을 보기에서 찾아 시간 순으로 채워 봅시다.

점동이 순덕이와 헤어짐.	→	①	→	점동이 보구녀관에서 통역을 도우며 의학을 공부함.	→	점동이 세례를 받고 에스더가 됨.
						↓
③	←	에스더가 미국 유학 길에 오와가를 만남.	←	에스더가 윌리엄, 로제타와 평양에서 의료 활동을 함	←	②
						↓
박여선이 세상을 떠남.	→	④	→	에스더가 조선에 돌아와 의사 생활을 시작함.	→	에스더가 세상을 떠남.

[보기]

㉠ 점동의 동생이 태어남.	㉡ 에스더가 리버티공립학교에서 공부함.
㉢ 점동이 이화학당에 입학함.	㉣ 에스더가 로제타가 한 구순 구개열 수술을 봄.
㉤ 에스더가 의과대학을 졸업함.	㉥ 에스더가 박여선과 결혼함.
㉦ 윌리엄이 세상을 떠남.	㉧ 에스더가 고종에게 은장을 받음.

2. 김홍택은 왜 다른 조선인들과 다르게 서양인 선교사를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18쪽)

(_____)

3. 다음 내용을 읽고 **잘못** 이해한 것을 고르세요. ……………() (28~29쪽)

“너는 영어를 잘하잖니. 미국에서 로제타라는 의사 선생님이 왔단다. 조선의 여인들은 남자 의사에게 치료를 받지 못하니 여의사가 온 거지. 로제타가 조선말을 하지 못하니 네가 통역을 해 주어야겠다.”

점동은 아까보다 더 놀랐다.

“여자가 의사라고요? 여자도 의사가 될 수 있나요?”

조선의 여자들은 가족이 아닌 남자에게 몸을 보일 수도 없었고, 만지게 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남자들만 스크랜턴의 아들인 닥터 스크랜턴 같은 양의사에게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았다.

“여자 의사가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자들도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도울게요. 뭐든 할게요.”

- ① 점동은 조선말과 영어를 할 수 있다.
- ② 로제타는 조선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고 한다.
- ③ 조선에는 여자를 치료할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
- ④ 조선의 여자들은 스크랜턴의 아들인 닥터 스크랜턴에게 치료받지 못한다.
- ⑤ 로제타는 조선에서 남자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4. 오와가가 점동 대신 로제타의 통역 일을 도왔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37쪽)

점동 대신 낮에 로제타를 따라다니며 통역 일을 도왔던 학생은 일본 소녀 오와가였다. 이화학당에 다니던 오와가도 병원의 통역 일을 했다. 점동만큼 영어와 조선말을 잘하진 못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

5. 의사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인생을 바꿔 줄 수 있다는 로제타의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62쪽)

“궁궐에 일자리를 구했어. 이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으니까 내 일을 찾아 할 거야. 로제타 선생님이 내 인생을 바꿔 주셨어. 나는 이제 당당한 나로 살 거야.”

부인은 새 얼굴뿐만 아니라 새 인생도 얻었다며 기뻐했다.

“점동, 의사는 상처만 치료하는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인생을 바꿔 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하루에도 몇십 명씩 쉬지 않고 환자를 보는 거야.”

6. 선교사들이 조선에서 의료 활동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69쪽)

로제타의 남편 윌리엄은 로제타와 마찬가지로 의사이자 선교사였다. 평양에서 근무하게 된 윌리엄은 아내 로제타와 6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갔다. 로제타도 평양에서 환자들을 진료해야 했기 때문에 로제타를 돕기 위해 에스더 부부도 함께 떠났다.

7. 박여선이 평양에서 포졸들에게 맞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71쪽)

“아이고, 이거 놓으시오.”

키가 크고 마른 박여선은 힘없이 휘청거렸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박여선을 발로 찼다. 마당을 뒹굴며 흙투성이가 된 박여선은 저만치에 고꾸라졌다.

“그만뒤요! 왜 죄 없는 사람을 때려요!”

에스더는 두들겨 맞는 남편을 보며 사람들에게 소리쳤지만 소용없었다.

()

8. 미국에 간 김에스더는 왜 박에스더가 되었나요? (88쪽)

()

9.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에스더를 응원하는 박여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90쪽)

남편 박여선은 일주일 내내 농장에서 일하고 집안일을 했다. 조선에서라면 남자들이 절대로 하지 않을 일들이었다.

“당신이 나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네요.”

“내가 하는 일이 즐거운 것은 아니요. 하지만 어찌겠소. 우리 둘 다 이 고생을 이겨 내야지.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당신은 공부에만 집중하시오.”

에스더는 자신을 뒷바라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박여선이 너무나 고마웠다. 남편을 생각하면 잠을 자는 시간도 아깝게 생각되었다.

10. 의과대학에 입학한 에스더가 학교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96쪽)

“저 동양인 학생이 실습실에서도 아주 잘한다지요?”

“나이기도 어린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왔다고 하더군요.”

의과대학 교수들 사이에서도 에스더는 화제가 되는 학생이었다.

()

11. 조선 사람들은 왜 ‘우리 의사’ 박에스더를 반겼을까요? (104~105쪽)

에스더가 조선에 왔다는 소식에 병원에는 환자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을 섰다.

“드디어 ‘우리 의사’가 왔네, 우리 의사. 얼굴도 같고 말도 통하는 조선 의사 말이야.”

환자들은 에스더를 우리 의사라고 불렀다.

12. 에스더가 만난 사람들이 잘못된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112~113쪽)

에스더가 가르쳐야 할 것은 끝이 없었다.

“아니 선생님, 그럼 머리가 깨져도 된장 바르지 말아요?”

“아이가 동전을 삼켜서 호두를 먹였어요. 호두가 배 속에 들어간 동전을 녹여 준다고 하던데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알고 있던 것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깨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13. 자신을 반기지 않는 조선 사람들을 만나며 에스더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13쪽)

에스더는 자신의 병을 감추려 하는 많은 여성들을 다독였다.
 그렇게 에스더는 모두를 치료하고 싶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를 반기는 것은 아니었다.
 “어디 여자가 뭘 안다고 몸예다 칼을 들이대고 그래? 귀신이 노해서 죽기라도 하면 책임질 거야?”
 “어디서 서양 귀신이 붙어 왔나? 이런 이상한 것들을 우리 몸에 갖다 대고 집어넣고 난리야.”

14. 다음 내용을 읽고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와 뜻을 바르게 연결하세요. (50, 107, 128쪽)

“콜레라는 쥐가 옮기는 병이라면서요. 그래서 고양이 그림을 붙여 놓으면 병이 집 안에 못 들어온대요.” 사람들은 아직도 ㉠(이)나 전해 내려오는 민간요법을 믿었다.	• •	개항	• •	의사가 병원 밖의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진료하는 것.
점동은 로제타를 따라 ㉡을/를 다니며 치료받지 못하는 조선 여성들의 현실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 •	미신	• •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여겨지는 믿음. 또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
조선 후기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가 되며 변화가 생겼어요. 기독교 인들은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하며 조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지요.	• •	왕진	• •	외국과 관계를 맺고 서로 물품을 사고팔 수 있게 항구를 개방하여 외국 선박의 출입을 허가함.

15. 다음 중 에스더가 사람들에게 했을 말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 (108, 112쪽)

로제타가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에스더는 황해도와 평안도에 무료 진료를 다녔다. … 에스더는 집집마다 방문해서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다. 치료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를 가르쳤다.

- ① “배탈이 났을 때는 그동안 먹지 않았던 새로운 음식을 먹으면 나을 거예요.”
- ② “병원에 와서 의사에게 몸을 내보이고 치료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예요.”
- ③ “몸이 아프면 바로 치료하기보다 우선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 ④ “오랫동안 이어져 온 민간요법은 믿을 만한 치료법이니 무조건 따르는 게 좋아요.”
- ⑤ “팔다리에 상처가 나면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약초를 캐서 문지르세요.”

16. 순덕이 에스더와 헤어질 때 못되게 굴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122~123쪽)

이화학당에 가기 전날, 순덕이와 헤어졌던 일이 엇그제처럼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래, 우리 정말 친했잖아. 그런데 네가 떠나기 전날 내가 참 못되게 굴었어. 그것도 기억하지?”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데. 너 그때 왜 그랬어?”

()

17. 에스더는 열심히 공부한 끝에 조선 최초의 여의사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사람들이 몰랐던 의학 지식도 가르쳐 주었지요. 의사로서 열심히 활동한 덕분에 고종에게 은장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에스더에게 상을 준다고 생각하고 에스더에게 줄 상장을 만들어 보세요.

제1910-2023호

상 장

표창 :

조선(대한 제국)

이름 : 박에스더

박에스더는

이 상장을 수여함.

20 년 월 일





독서단원
-독서 후

조선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
(독서 토의·토론)

글 : 고수산나 그림 : 안혜란 출판사 : 청어람주니어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_____

1. 조선 사람들은 낯선 외국인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무서워하며 피했어요. 오늘날에도 자신과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주변 사람을 따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저 눈 색깔 좀 봐.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저 기다랗고 높은 코는 어땠고. 서양 귀신들이 아이들을 잡아가려고 모은다는 얘기가 있어.”
골목에서 놀던 아이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이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스크랜턴이 고개라도 돌리면 열린 문을 닫아 버렸다. 스크랜턴이 웃으면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가는 아이도 있었다. (25쪽)

2. 에스더는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에 남지 않고 조선으로 돌아가서 의사로 활동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에스더의 결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자네 같은 의사를 뽑으려는 병원들이 많을 거야. 내가 추천서를 써 주겠네. 미국 병원 중에서도 일급도 많고 대우도 좋은 곳이지.”
“그동안 고생 많았네. 좋은 병원에서 이제 돈도 잘 벌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에스더에게 좋은 조건을 가진 병원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들어왔다.
“아닙니다. 저는 조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의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저를 기다리는 조선의 수많은 여성들이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그들을 위해 살 겁니다.” (102쪽)

3. 윌리엄은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어요. 오늘날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떠올려본 후 자신의 생각을 쓰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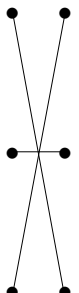
“아무 상관도 없는 조선인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이예요. 그분에게 어떤 감사를 전해도 부족할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희생하셨을까요?”
에스더는 윌리엄의 죽음으로 큰 슬픔에 빠졌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82쪽)

 <p>독서단원 -정답</p>	조선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	초등학교
	(인물 관계도, 낱말 퍼즐, 독서 퀴즈)	학년 반 번
	글 : 고수산나 그림 : 안혜란 출판사 : 청어람주니어	이름 : _____

인물 관계도	낱말 퍼즐									
1. 김배세 2. 박여선		②구				⑤진		⑥제	물	⑦포
		순		③공		④통	역			도
	①보	구	녀	관		제		⑩쇄		대
		개						국		장
		열		⑪민		⑫복		⑬정	동	
			⑩수	간	호	원		책		
	⑧증			요					⑰소	
	기			법		⑯마			독	
	⑨선	교	사		⑮피	부	이	식	수	술

독서 퀴즈

1.
 - ① - ㉔ 점동이 이화학당에 입학함.
 - ② - ㉕ 에스더가 박여선과 결혼함.
 - ③ - ㉖ 에스더가 리버티공립학교에서 공부함.
 - ④ - ㉗ 에스더가 의과대학을 졸업함.
2. 선교사를 돕는 집사 일을 해서 영어도 조금 할 줄 알고 선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3. ㉘
4. 조선의 여자들은 초경 종이 올리는 저녁 8시 이전에는 돌아다닐 수 없어서 점동은 밤에만 로제타를 따라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5. 몸이 아파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니 자신감이 생기고 전과 다르게 살 수 있다는 의미이다 등
6. 선교 활동보다 의료 활동으로 종교를 알리면 거부감이 덜할 거라고 판단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기독교 정신에 맞는 일이라서 등
7. 평양의 보수적인 양반과 벼슬아치들은 평양에 기독교가 알려지는 것을 싫어했는데 박여선이 선교사들을 돕고 있었기 때문에
8. 미국에서는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성을 따르기 때문에
9. 힘들지만 에스더를 도울 수 있어서 보람 있었다. 에스더가 공부를 마치면 자신도 하고 싶은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다 등
10. 로제타를 도와 진료와 수술을 했던 덕분에 환자의 치료와 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11. 말이 잘 통해서, 조선 생활을 잘 알고 있어서 아픈 이유를 잘 맞히고 치료를 잘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이해해 주는 조선인 여의사를 만난 것이 반가워서 등
12. 조선은 양의학, 양의사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미신이나 전해 내려오는 민간요법이 병을 치료해 줄 거라고 믿어서 등
13.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 주지 않아 힘들고 억울했다. 의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가르쳐 주고 싶었다. 자신이 조선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명감이 들었다 등

“콜레라는 쥐가 옮기는 병이라면서요. 그래서 고양이 그림을 붙여 놓으면 병이 집 안에 못 들어온대요.” 사람들은 아직도 ㉚(이)나 전해 내려오는 민간요법을 믿었다.		개항 미신 왕진		의사가 병원 밖의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진료하는 것.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여겨지는 믿음. 또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 외국과 관계를 맺고 서로 물품을 사고팔 수 있게 항구를 개방하여 외국 선박의 출입을 허가함.
--	---	----------------	---	---

15. ㉚
16. 에스더와 헤어지는 게 속상해서, 에스더가 좋은 학교에 가서 자신을 잊어버릴까 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등